

# 이제 나이들이어가는 것을 다시 보자

본격적인 실버출판 열어가는 '나이' '노인' 관련서들

요즘 '나이' '노인' 등을 제목에 단 책들이 눈에 띈다. 우리 사회에서 나이들이어간다는 것은 곧바로 심리적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었고, 노년층으로 접어들다는 것은 또다른 소외를 의미했다. 그러나 요즘 '나이' '노인' 등을 제목으로 달고 나오는 책들은 나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성찰하고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이' 책들은 크게 중년과 노년으로 나눌 수 있다. 노년 책들은 노인을 위한 책, 노인이 들려주는 이야기, 노인문학 등 다양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이' 책들 가운데 큰 흐름을 차지하는 것은 노년에 초점을 맞춘 책들이다. 이전에도 '나이'를 예찬하거나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안내서가 드문드문 출판된 적이 있지만 특히 요즘 들어 '나이' 책 출판이 활발해진 것은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실제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한국이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 책들은 본격적인 '실버출판'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 심리적 위기감보다는 긍정적으로 나이 성찰해

남성이 나이들이어가는 것을 인식하는 때는 40대로 접어들면서부터다. 가정도 안정되고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얻어 성취감도 있지만, 젊은 시절의 꿈을 대부분 접어야 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심리적 좌절과 허탈감에 빠지게 된다. 《남자 나이 마흔이 된다는 것》(짐 콘웨이, 한성열, 학지사)에서 지은이는 별 육체적 변화 없이 찾아오는 40대의 심리적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좌절하지 말고 "자신은 누

구고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묻고

청년기의 목표들이 새롭게 확장되도록 노력하라고 충고한다.

여성의 입장에서 나이를 이야기하는 책도 있다. 《여성의 몸 여성의 나이》(편집부, 또하나의문화), 《나이들이 대하여》(박혜란, 웅진닷컴) 등이 그것. 《여성의 몸 여성의 나이》는 몸과 관련된 여성들의 체험, 나이들이나 늙음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즐거움과 고통을 드러내고 여성이 새로운 주제로 다시 설 수 있는 사회를 구상한다. 이에 비해 《나이들이 대하여》는 여성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주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 것이며 자신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찬찬히 돌아본다.

《노년기의 의미와 즐거움》(에릭슨 외, 한성열, 학지사), 《아름다운 실버》(로버트 L. 베닝가, 조민숙, 열음사), 《아름다운 노년을 위하여》(고광애, 아침나라), 《불량 노인이 되자》(세키 칸테이, 오근영, 나무생각) 등은 일종의 노년기 안내서들이다. 이 책들은 노년기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강조하면서 노년의 문화, 홀로서기 방법, 건강관리 방법 등을 설명한다. 조금은 도발적인 제목을 붙인 《불량노인이 되자》의 지은이는 늙더라도 타성에 젖지 말고 의욕적으로 살 것을 권유한다.

《나이들이어가는 것의 아름다움》(잭 캔필드 외, 김문호, 씨앗을뿌리는사람)은 노년을 안내하기보다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아름다운 노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살이의 지혜를 들려준다. 《헬렌 니어링, 또다른 시작》(엘렌 라콘테, 황의방, 두레)에는 《조화로움 삶》(헬렌 니어링 외, 류시화, 보리)으로 유명한 자연주의자 헬렌 니어링의 활기 넘치고 영

성으로 가득찬 노년이 그려져 있다.

## 노인층이 주체적 사회세력으로 자리잡을 것

평민사에서 펴내는 <실버문고> 시리즈는 노인들이 젊은 시절에 좋아했을 만한 작가들의 글을 모아서 책으로 펴내고 있다. 지금까지 피천득, 이근삼 등의 수필을 모은 《노인에찬》 등 6권의 책이 출간됐다. 노인층이 주 독자인 만큼 활자도 키워 읽기 편하게 했다. 이 시리즈는 앞으로 손자와 함께 하는 놀이, 노인 재테크, 건강관리 등 실버사회에 요구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계속 출간될 예정이다.

문학 분야에서도 '노인문학'이라는 장르가 서서히 거론되기 시작했다. 박완서의 《너무도 쓸쓸한 당신》(창작과비평사)을 비롯해 김원일의 《슬픈 시간의 기억》(문학과지성사), 최일남의 《아주 느린 시간》(문학동네)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노인이 된 지은이들이 쓴 소설들에는 자연스럽게 노인이 이야기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소설들은 젊은 층보다는 40~50대 이상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어 서서히 노인문학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씨앗을뿌리는사람의 유은영 차장은 "이미 실버출판은 본격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10년, 20년 후에 노인이 되는 30대 후반과 40대의 성격은 지금의 노인과 많이 다를 것이다. 이들은 탄탄한 인문서를 접한 세대며, 문학과 사회과학 논쟁의 중심에 있던 세대다. 지금의 실버출판이 '이렇게 살라'고 외치는 책이라면 이들 세대에서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며 좀더 주체적인 사회 세력으로 발언하는 책들이 출간될 것"이라며 실버출판의 미래를 내다봤다. -김장근 기자

